

데스크칼럼

김인수

사회교육부장



기억하는가.

‘반역의 명령에 따라 배반의 총칼이 찾아든 광주 학살! 계엄군에 의해 30대 농아 가정이 곤봉에 맞아 죽고, 19살 처녀가 칼에 가슴을 찔리고, 시민들이 총에 맞아 죽고... 이후 십 수년 동안 이 나라 국민은 이를 ‘광주사태’라고 불렀다. 국가 권력을 찬탈한 이들은 ‘사회 안정을 위한 폭도의 진압작전’이라고 표현했다. 또 참혹한 주검을 보듬고 진실만이라도 밝혀달라고 몸부림치는 고립무원의 광주를 ‘빨갱이의 도시’라고 규정했다.’

국립5·18민주묘지 5·18추모관에 적혀 있는 이 글을 보며 그날을 상기한다.

‘금남로’ ‘전남도청’ ‘계엄군’ ‘시민군’ ‘주먹밥’ ‘임을 위한 행진곡’... 단어 하나하나에 당시의 아픔과 상흔, 시민의 불같은 연대, 포기할 수 없는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오롯이 느껴진다.

필자는 초등학교 6학년의 시선으로 1980년 5월의 광주를 목도했다.

서구 월산동 돌고개 인근에 살면서 고맙게도(?) 민주화운동의 경험치를 조금이나마 얻을 수 있었다.

기고

성경훈

광주 동구 경제환경국장



지난해 연말 이후 탄핵 정국,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 인구 감소가 맞물리며 지역 경제가 더욱 심하게 흔들리고 있다. 소상공인은 매출 하락과 운영 부담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청년과 신중년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졌다.

일자리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개인의 삶과 지역 공동체의 미래가 달린 문제다. 지역 경제가 다시 활력을 찾기 위해서는 지역 사회를 기반한 일자리와 소상공인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이 절실히 필요하다.

올해 초 소비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동구를 비롯한 4개 자치구, 광주시는 1~2월 동안 ‘광주상생카드 특별할인’에 나섰다. 지역화폐 발행으로 골목상권과 전통 시장으로 소비를 유도하고자 ‘동구 사랑상품권’ 발행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자금의 선순환을 촉진하고, ‘착한가격업소’를 지원해 물가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더욱이 ‘광주 빅3 복합쇼핑몰’ 입점 예고로 지역 경제는 중요한 변곡점에 놓여 있다. 북구 전남·일신방직 자리

다시 만난 오월, 대축제의 장으로...

당시 서부경찰서 앞 광송간(광주~송정) 도로에 탱크와 장갑차가 다니고, 가로수는 군데군데 뽑혀 있었다. 화정동 지하도로 앞에서는 군인들이 철조망을 치고 외부로 나가는 차량과 시민을 통제하는 저지선을 구축했다.

동네 아주머니들이 주먹밥을 만들어 시민군 차량에 전달하는 모습도 생생하다.

총을 든 시민군으로 가득 찬 버스가 도로를 달리며 “전두환은 물러가라!” “김대중을 석방하라!” “계엄령을 해제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고, 상공의 헬기에서는 “폭도들은 투항하라!” 등의 메가폰 소리가 하루 종일 이어졌다.

전남대학교에 다니던 큰형과 고등학생이던 작은형은 비상계엄 동안 집 밖에 나가지도 못했다. 근처에 살던 삼촌이 계엄군 눈에 띄면 잡혀가니 절대로 집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고 어머니께 신신당부해서다.

계엄이 해제되고 얼마 되지 않은 무렵, 서울에 살던 친척이 집에 와서 ‘광주 사태는 간첩의 소행’이라고 억지 주장하는 소리를 듣고 뒷방에서 분해했던 기억이 난다. 그리고 금남로에 사는 부모님 지인이 계엄군 총에 맞아 사망했다는 소식까지... 그날을 떠올리면 45년이 지난 지금도 등골이 오싹해진다.

기름 벉찬 오늘, 청명한 날씨 속 그날을 기억하고 싶어 5·18광주민주묘지를 다시 찾았다.

민주열사들이 목숨을 바쳐 열어준 너무도 보물 같은 세상인데, 마음이 편치 않다.

1980년 계엄 정국에서 피로 물든 밤을 지새웠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건만 윤석열의 느닷없는 ‘12·3 비상계엄’

으로 부활한 계엄의 밤을 또다시 목도하고, 이어진 대선 정국의 한복판에서 광주의 오월이 다시 찾아왔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탄핵 선고와 조기 대선으로 민생경제는 파탄 날 지경인데 한덕수 대선 예비후보의 ‘광주 사태’ 발언이 화를 더 높였다. 또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은 5·18 북한군 개입설을 용인하는 듯한 발언을 해 공분을 샀고, 지속적인 허위 사실을 유포한 인터넷 매체에 대한 고소도 잇따르고 있다. 학교 도서관에는 5·18민주화운동을 폄해·왜곡하는 내용의 도서가 여전히 비치돼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이처럼 5·18에 대한 왜곡과 폄해가 계속되는 현실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누구를,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가?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끝없는 물음으로 광주의 오월정신을 기억해야 한다.

그러려면 오월정신을 헌법 전문에 반드시 수록해야 한다. 5·18민주화운동의 핵심 가치를 대변하는 오월정신에는 독재에 맞선 국민의 저항 의식과 민주주의 실현 의지가 고스란히 담겨있기 때문이다. 엄중한 탄핵 정국 속에서도 응원봉을 흔들며 민주주의를 열망한 시민들의 바람을 민주주의의 씨앗인 5·18과 이어주는 출발선이기도 하다.

올해의 5월은 축제의 장으로 만들어보자. 혼돈의 선거시기와 겹쳤지만 오월 광주를 찾는 시민들이 해방 광주가 꿈꿨던 대동세상을 특별한 경험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해보자. 슬픔보다는 새로운 세상의 가능성과 표상을 보여주는 민주 대축제의 장으로 만들어보자.

일자리와 소상공인, 지역 경제 회복의 두 축

에 광주 첫 복합쇼핑몰 ‘더현대’, 서구 광천동 버스터미널 자리에는 현 광주신세계 구부의 약 3배를 확장하는 ‘신세계 복합쇼핑몰’, 광산구 이등산 관광단지엔 ‘그랜드 스타필드’ 복합쇼핑몰까지 건립을 준비 중이다. 여기에 오프라인보다 온라인 쇼핑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지역 상권의 지속성도 장담할 수 없다.

이에 발맞춰 광주시가 빅3 복합쇼핑몰 입점에 따른 상생 방안을 논의하고자 구성된 ‘상생발전협의회’ 운영과 함께 오는 6월 발표하는 상권 영향 분석과 상생 방안 연구 용역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그간 복합쇼핑몰 입점을 놓고 설왕설래했던 과거와 달리, 이제 우리는 소상공인 지원, 일자리 창출, 신산업 육성, 지역 상권의 혁신을 통해 동구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시점이다.

이미 동구는 코로나19 장기화 이후 대면에서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이에 따른 소비 패턴 변화라는 위기를 곧 기회로 삼았다. 2022년부터 100억원 규모의 ‘충장상권 르네상스’ 사업을 추진으로 2년간 꽤 많은 성과를 거뒀다. 호남 최대 상권이라는 옛 충장로 명성 회복에만 급급하지 않은 덕분에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 기회란 라는 패스타 성공 개척, 로컬 브랜드와 핵심포 유주 등이 대표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3 계엄 사태 이후 16년 만에 소

비 심리가 위축됨에 따라 지역 내 소상공인 매출까지 직격탄을 맞고 있다. 운영 부담에 폐업을 고려하는 업체가 늘면서 동구는 ‘임차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에 나섰다. 연 매출 1억원 이하의 소상공인들에게 카드 매출액의 0.5% (최대 30만원)을 지원하고, 예비 창업자와 기존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 및 이치보전’과 창업 지원 강화에 내실을 기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AI)과 헬스케어라는 신산업 육성으로 동구를 ‘미래 의료 산업의 중심지’로 발전시켜 지속가능한 도시의 원동력을 키워나가고 있다. 여기에 ‘AI 기반 디지털 마케팅 부트 캠프’ 운영으로 지역 기업과 연계한 E-커머스 마케팅 실무 경험을, ‘AI 기반 RPA 분야 CDS 전문인력 양성 과정’을 청년 인재를 육성, 지역 기업과의 취업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

이 모든 일련의 과정 속에서 얻은 경험, 고통, 성과 등은 루이 파스퇴르가 남긴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 온다’는 명언과 일맥상통한다. 침체된 지역 상권 회복, 소상공인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등 기회가 오기 전에 준비가 돼 있어야 기회를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순우리말로 ‘즐거움’을 의미하는 ‘라온’이 충장 상권을 만나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은 것처럼, 우리 동구의 소상공인과 청년, 신중년 모든 이들에게 파스한 봄이 찾아오길 기대해본다.

독자투고

딤페이크 범죄, 청소년도 예외 아냐

AI 기술의 발전과 함께 등장한 딤페이크 기술이 이제는 청소년 범죄의 새로운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얼굴이나 음성을 정교하게 조작할 수 있는 이 기술은, 단순한 장난처럼 시작되지만 누군가에게는 삶을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3년 딤페이크 범죄는 전국적으로 700건 이상 발생했다. 이중 청소년 가해자가 포함된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다.

피해자 역시 대부분 10대 청소년으로, SNS 사진을 도용해 만든 음란물이 유포되는 사례가 가장 많았다.

문제는 많은 청소년이 딤페이크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행동한다는 점이다. 실제 ‘이게 그렇게 큰일인가요?’라는 말이 현장에서 자주 들린다.

관련 행위는 명백한 디지털 성범죄이자 형사처벌 대상이다. 경찰은 수사와 단속뿐 아니라 학교 대상 예방 교육, 피해자 보호 등 다방면에서 대응 중이지만 경찰의 노력만으로는 이를 근절할 수 없다.

청소년들이 기술의 유혹에 앞서 그 책임을 인지하고, 타인의 권리를 존중할 수 있도록 가정과 학교, 사회가 함께 나서야 한다.

최관중 여수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경감

사설

대선 선거운동 돌입... 정책선거의 장 되길

우여곡절 끝에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선거의 후보자 등록이 11일 마감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개혁신당 이준석, 민주노동당 권영국, 자유통일당 구주와, 무소속 송진호, 무소속 황교안 후보 등이 등록했다.

특히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지도부 주도의 새책시간대 ‘초유의 후보교체’ 단행으로 후보직을 잃었다가 당원들의 급제동으로 살아나는 등 생사를 오가는 ‘혼돈의 24시간’을 보낸 뒤 가까스로 생존했다.

이들 후보들은 12일부터 공식선거운동에 돌입해 선거일 하루전인 다음달 2일까지 22일간 전국 곳곳을 돌며 선거 유세에 나서게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기간 중 유권자를 위해 각 후보가 참여하는 TV 토론회를 초청 대상 후보자 토론회 3차례, 초청 외 후보자 대상 토론회 1차례 등 4차례 진행할 예정이다.

사전투표는 29일과 30일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사전투표소에서 실시된다.

문제는 이번 대선이 제20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사태로 인해 치러지는 조기대선이다보니 선거운동 과정에서 또 다시 이를 둘러싼 진보와 보수 갈등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를 사고 있다는 점이다.

후보진영들이 경기침체, 비상계엄 등 가혹이나 힘들고 혼란스런 국민들을 다독이고 사로 잡을 수 있는 공약보다는 자신의 지지층을 잡기 위해 혈안이 돼 상대방 헐뜯기에 올인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만약 공식 선거운동이 그렇게 흘러갈 경우 선거 후 겪어야 되는 ‘극심한 선거 후유증’은 명약관화다.

공식선거운동 기간 22일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다. 이제 대선 후보들은 이 기간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공약들을 내걸고 지지를 호소해야 한다. 또 분열을 조장하기보다는 둘로 갈라진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통합하는 데 전력을 다하는 대선보수를 걸어야 한다. 특히 침체된 경제살리기에 전력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헌정 사상 최초로 실시되는 이번 6월 장미 대선이 어느 대통령선거 때보다 깨끗하고 공약이 풍성한 정책 선거의 장이 되길 간절히 바란다.

‘영농형 태양광’ 보급 확대 대책 마련을

영광에서 전국 최대 규모의 ‘영농형 태양광 발전단지’가 첫 발을 뗀다. 최근 영광 염산면 월평마을에서 3MW급 규모의 영농형 태양광 발전단지 1단계사업(1MW) 준공식이 열린 것이다.

영농형 태양광은 논지 위에 높이 3~4m 구조물을 설치하고 태양광 패널을 올려 농업과 태양광 발전을 동시에 운영하는 방식을 말한다. 기존 태양광 발전소와 달리, 농사를 유지하면서도 발전 수익을 추가로 창출할 수 있는 점이 장점이다.

이번에 첫발을 뗀 ‘영광 월평마을 영농형 태양광 발전단지’는 전남도 주관으로 사업 부지를 공모·선정한 이후 약 3년 만에 영광군과 마을 주민들이 합심해 거둔 성과물이라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총 54억원을 들여 염해간척지 약 5만㎡ 면적에 3MW급 규모로 조성되는 이 발전단지는 이번 1단계 조성으로 본격적인 상업 운전전에 들어간다. 서영광 변전소가 신축되는 내년 하반기에는 2단계사업(2MW)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 발전단지는 전국 최대 규모 영농형 태양광 상용화 모델로 실증효과를 물론 지속 가능한 최적의 재생에너지 확대 방안이라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주민들이 농촌소득 증대와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해법으로 이를 조성키로 하고, 자발적으로 조합을 만들어 주민 주도형 개발이익 공유 실현에 적극 나선 사례라는 점에서도 눈길을 끈다.

실제로 월평마을 주민들은 지난 2022년 10월 월평햇빛발전협동조합을 설립, 조합이 사업주체가 돼 발전수익을 토지소유자와 경작자, 마을 주민 모두가 함께 햇빛연금을 공유하기로 했다.

즉 월평마을 28가구가 가구당 매월 11만8000원씩 연간 142만원을 지급받기로 한 것이다. 이 발전단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영농형 태양광 사업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이다보니 아직까지는 이를 보급·확대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다.

전남도와 정부, 그리고 국회는 농촌 소득 불균형 해소와 인구 유입 효과까지 기대되는 ‘영농형 태양광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회장·발행인·편집인 전용준	논설실장 김상훈	편집국장 최현수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4 우편번호 61234 대표전화 (062) 370-7000 팩스 (062) 385-5400	정 치 부 370-7010 경 제 부 370-7020 사회교육부 370-7030 지역사회부 370-7040 문화체육부 370-7234 편 집 부 370-7082 사 진 부 370-7050	논 설 실 370-7060 뉴미디어본부 370-7222 임 원 실 370-7000 총 무 국 370-7093 사 업 국 370-7090 광 고 국 370-7070 독자관리국 370-7080 서울지사 02-878-7090
1995년 12월 12일 창간 2012년 5월 3일 등록번호 광주 가-52(일간)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